

2021 IMD 세계경쟁력 분석

내용

1. 개요
2. 국가 경쟁력 순위
3. 과학 인프라 순위
4. 기술 인프라 순위
5. 요약 및 정리

작성

김선경 연구위원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skykim09@kistep.re.kr 043-750-2345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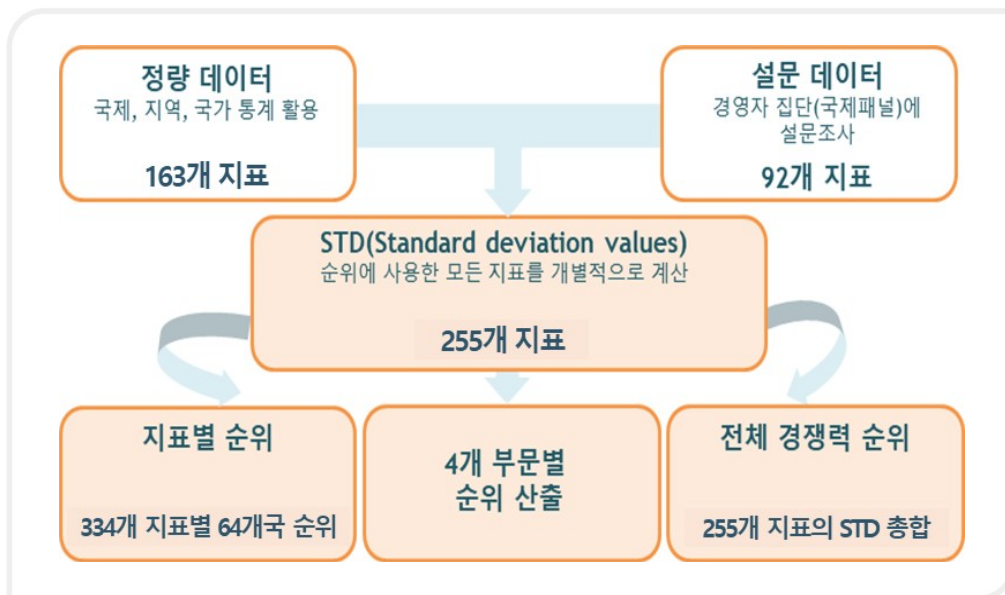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는 1989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간

- IMD는 국가 경쟁력을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전 세계 60여개 국가*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해 오고 있음

* 올해는 전년도의 63개국에서 보츠와나가 추가되어 총 64개국에 대해 평가

- 평가체계는 2021년 기준으로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인프라의 4개 부문과 하위의 20개 항목, 334개의 지표로 구성됨

* 총 334개 지표 중 실제 평가에 사용된 지표는 255개이며, 나머지 79개 지표(background information)는 순위 평가에 사용되지 않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



자료) IMD, Methodology and Principles of Analysis, 2021.6

[그림 1] 국가 경쟁력 순위결정 방법

- 이번 호는 IMD가 2021년 6월에 발표한 IMD 세계경쟁력 순위에 대하여 국가경쟁력 및 과학기술 관련 부문(과학 인프라와 기술 인프라)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분석

2. 국가경쟁력 순위

-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종합평가결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4개국 중 23위로 전년대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
 - 전년도 3위였던 스위스가 1위로, 6위였던 스웨덴이 4단계 상승한 2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싱가포르의 5위로 4단계 하락
 - 작년부터 이어지는 유럽의 강세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반영된 올해 더 강화되었으며, IMD는 이 결과를 유럽이 타지역보다 팬데믹의 위기에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해석
 - 대만은 3단계 상승하여 10위권 진입, 캐나다가 10위권 밖으로 6단계 하락, 미국은 10위 유지이나 2019년의 3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순위, 중국은 4단계 상승한 16위, 일본은 3단계 상승한 31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2021년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홍콩	대만	아랍 에미리트	미국
2020년	싱가포르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홍콩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아랍 에미리트	미국
2019년	싱가포르	홍콩	미국	스위스	아랍 에미리트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카타르
2018년	미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아랍 에미리트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2017년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룩셈 부르크	스웨덴	아랍 에미리트

자료) IMD, 「202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1.6

[그림 2] 연도별 국가경쟁력 상위 10개국 추이(2017-2021)

- 한국은 전체 국가 중 23위, 14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7위, 29개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8위로 전년대와 동일한 순위

※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순위: 10위('17년) → 9위('18년) → 9위('19년) → 7위('20년) → 7위('21년)

※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중: 11위('17년) → 10위('18년) → 11위('19년) → 8위('20년) → 8위('21년)

- 경제적 성과 분야*는 올해 우리나라는 국내경제 부문(↑6), 국제무역 부문(↑8), 고용 부문(↑7)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제투자 부문(↓4)과 물가 부문(↓3)의 하락에도 전년 대비 9단계 상승(27위 → 18위)

* 국내경제, 고용동향, 물가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 정부 효율성 분야*는 올해 공공재정 부문이 소폭 상승(↑1)하였으나, 나머지 조세정책 부문, 제도적 여건, 기업관련 법, 사회적 여건 부문에서 하락하며 6단계 하락(28위 → 3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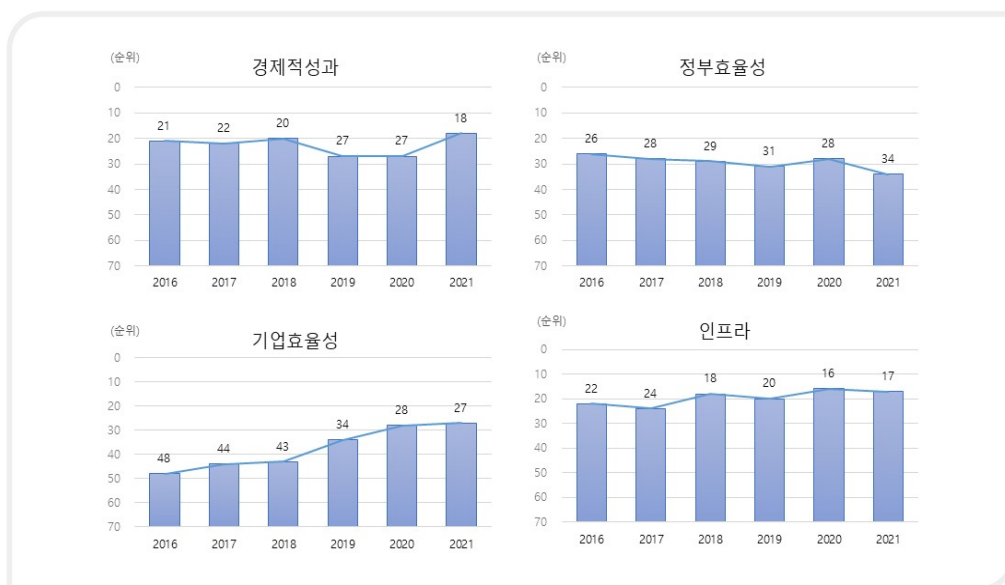
* 정부 정책이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

- 기업 효율성 분야*는 올해 노동시장, 태도 및 가치관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생산성·효율성과 금융 부문, 경영활동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세부 부문은 큰 변화의 폭을 보인 가운데 1단계 상승(28위 → 27위)

* 국가의 환경이 기업이 혁신적이고 수익성 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정도

- 인프라 분야*는 20개 부문 중 가장 순위가 높은 과학인프라 부문이 다시 1단계 상승하여 2위를 기록하였고, 기본인프라, 보건 및 환경의 소폭 상승, 기술인프라, 교육 부문의 하락을 반영하며 1단계 하락(16위 → 17위)

* 기본, 기술, 과학 및 인적자원이 기업의 요구와 만나는 정도



자료) IMD, 「202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1.6

[그림 3] 우리나라 4대 분야별 순위 추이

〈표 1〉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및 20대 부문별 순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경쟁력		29	27	28	23	23
경제적성과	국내경제	17	9	16	11	5
	국제무역	35	35	45	41	33
	국제투자	40	35	30	30	34
	고용	7	6	10	12	5
	물가	47	54	53	48	51
정부효율	공공재정	19	22	24	27	26
	조세정책	15	17	18	19	25
	제도적 여건	29	29	33	29	30
	기업관련 법	48	47	50	46	49
	사회적 여건	42	38	39	31	33
기업효율	생산성·효율성	35	39	38	38	31
	노동시장	52	53	36	28	37
	금융	35	33	34	34	23
	경영활동	59	55	47	36	30
	태도 및 가치관	36	30	25	15	21
인프라	기본인프라	27	22	23	20	18
	기술 인프라	17	14	22	13	17
	과학 인프라	8	7	3	3	2
	보건 및 환경	35	32	32	31	30
	교육	37	25	30	27	30

자료) IMD, 「202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1.6. 단, 20대 부문별 '17~'19순위는 각 년도 보고서에서 발췌

3. 과학인프라 순위

● 2021년 과학 인프라 부문 1위는 전년과 동일한 미국이며 한국, 스위스, 독일, 이스라엘 순

- 전체 지표는 22개*이며 기존의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 비율'이 '과학기술분야 졸업자 수 비율'로 변경됨

* 정량지표 15개, 설문지표 3개, 보조지표 4개

- 상위 10위권을 보면, 영국이 2단계 상승한 9위로 3년만에 10위권으로 재진입하였으며, 한국과 대만이 1단계씩 상승
-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한국, 대만, 일본, 중국 4개국이 10위권이며 싱가포르가 2단계 하락한 17위, 홍콩 23위(-), 인도 28위(↓ 1), 말레이시아 30위(↑ 2)

〈표 2〉 IMD 과학인프라 상위 40개국 순위

국가	2020년 순위	2021년 순위	국가	2020년 순위	2021년 순위
미국	1	1	이탈리아	22	21
한국	3	2	호주	21	22
스위스	2	3	홍콩	23	23
독일	4	4	러시아	25	24
이스라엘	5	5	체코	24	25
대만	7	6	스페인	26	26
스웨덴	6	7	룩셈부르크	28	27
일본	8	8	인도	27	28
영국	11	9	뉴질랜드	31	29
중국	10	10	말레이시아	32	30
덴마크	9	11	포르투갈	34	31
오스트리아	12	12	사우디아라비아	29	32
네덜란드	13	13	아랍 에미리트	37	33
프랑스	14	14	슬로베니아	33	34
핀란드	16	15	헝가리	36	35
노르웨이	18	16	폴란드	30	36
싱가포르	15	17	아이슬란드	35	37
벨기에	17	18	태국	39	38
캐나다	19	19	터키	38	39
아일랜드	20	20	그리스	40	40

자료) IMD, 「202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1.6

❶ 한국의 과학인프라 순위는 역대 가장 높은 2위이며,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특허수,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등이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 중

※ 인구 천명당 R&D연구자 수 1위, GDP 대비 총연구개발투자비 및 기업연구개발비 비중 2위, 인구 10만명당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수 2위 등

❷ 전년대비 지표 순위의 변화를 보면, 총 22개* 지표 중 5개 지표의 순위가 상승하였고, 하락한 지표는 1개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성과가 상승

※ 신규 교체된 지표가 삭제된 지표보다 높은 순위인 것도 순위 상승에 영향을 줌

- 10위권 내의 강점지표가 17개이며 나머지 5개 지표는 모두 25위권 이하의 약점지표로 강약점 지표의 양극화가 뚜렷함
- 3개의 설문지표는 모두 25위권 이하로 약점지표이나 3개 지표 모두 올해 순위가 상승하며 약점을 개선하는 중

〈표 3〉 우리나라 과학인프라 지표 현황

구분		순위		순위변화
		2020년	2021년	
과학인프라		3	2	↑ 1
총 연구개발투자	정량	5	5	-
GDP 대비 총연구개발투자비 비중	정량	2	2	-
국민 1인당 연구개발투자	보조*	8	9	↓ 1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정량	5	5	-
GDP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정량	2	2	-
총 연구개발인력	정량	6	6	-
인구 천명당 연구개발인력	정량	3	3	-
기업 총 연구개발인력	보조*	5	5	-
인구 천명당 기업 연구개발인력	보조*	3	3	-
인구 천명당 R&D연구자 수	정량	2	1	↑ 1
과학기술분야 졸업자 수	정량	-	10	(신규)
과학분야 논문 수	정량	10	9	↑ 1
노벨상 수상	보조*	29	29	-
인구 백만명당 노벨상 수상	정량	29	29	-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 수	정량	4	4	-
인구 10만명당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수	정량	3	2	↑ 1
출원인 국적별 특허 등록 수	정량	4	4	-
인구 10만명당 출원인 국적별 권리유효 특허건수	정량	4	4	-
중간-첨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정량	4	4	-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설문	31	30	↑ 1
지적 재산권의 보호정도	설문	38	36	↑ 2
산학간의 지식 전달정도	설문	30	25	↑ 5

자료) IMD, 「2020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와 「202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각각 발췌하여 정리.

* 보조지표(Background information)는 실제 부문별 순위평가에는 사용되지 않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

4. 기술인프라 순위

- 2021년의 기술인프라 부문의 1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싱가포르가 차지하였고,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미국 순

- 지표수는 18개*이며, 기존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3G&4G)’이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4G&5G)’로 변경됨

* 정량지표 11개, 설문지표 7개, 보조지표 없음

- 전년대비 10위권 국가의 구성에는 변화가 없으며,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중국이 1단계씩 상승하고 스웨덴과 덴마크가 각각 1단계, 대만이 2단계 하락
- 주요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이 10위권, 한국, 말레이시아가 20위권, 인도 21위, 일본은 32위에 위치

〈표 4〉 IMD 기술인프라 상위 40개국 순위

국가	2020년 순위	2021년 순위	국가	2020년 순위	2021년 순위
싱가포르	1	1	인도	30	21
네덜란드	3	2	스페인	26	22
스웨덴	2	3	벨기에	20	23
핀란드	4	4	라트비아	24	24
미국	6	5	독일	25	25
덴마크	5	6	오스트리아	19	26
홍콩	7	7	리투아니아	22	27
스위스	9	8	포르투갈	29	28
중국	10	9	호주	18	29
대만	8	10	사우디아라비아	28	30
프랑스	11	11	룩셈부르크	41	31
노르웨이	12	12	일본	31	32
아이슬란드	23	13	체코	33	33
영국	15	14	카타르	36	34
이스라엘	16	15	이탈리아	39	35
캐나다	14	16	에스토니아	35	36
한국	13	17	태국	34	37
아랍 에미리트	27	18	뉴질랜드	40	38
아일랜드	21	19	슬로베니아	32	39
말레이시아	17	20	헝가리	44	40

자료) IMD, 「202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1.6

📍 우리나라의 기술 인프라 부문 순위는 해마다 큰 변동폭을 보이는 가운데, 2021년 순위는 전년대비 4단계 하락한 17위

※ ('17년)17위 → ('18년)14위 → ('19년)22위 → ('20년)13위 → ('21년)17위

- 4개 지표의 순위가 상승한 반면, 13개 지표의 순위는 하락하여 전체 기술 인프라 부문 순위가 하락함
- 7개 설문항목 중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4)을 제외한 6개 지표의 순위 및 점수가 하락하였고, 그 중 3개 지표*의 순위는 9단계 이상 하락

* 디지털 기술의 사용 용이성(33위, ↓15),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37위, ↓12), 공공 및 민간부문의 벤처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38위, ↓9)

- 11개 정량지표 중 7개 지표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2개 지표*가 9단계 이상 큰 폭으로 하락
 - * 인구 천명당 컴퓨터수(26위, ↓9), 평균 인터넷 대역폭 속도(12위, ↓10)이며, 평균 인터넷 대역폭 속도의 경우 자료원은 동일하나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값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집계방식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정량지표 중 인구 천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는 최근의 인터넷 사용자수 증가를 반영하여 큰 폭(↑9)으로 상승

〈표 5〉 우리나라 기술인프라 지표 현황

구분		순위		순위변화
		2020년	2021년	
기술인프라		13	17	↓4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비중	정량	42	44	↓2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4G& 5G 기준)	정량	10	9	↑1
1인당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	정량	55	57	↓2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설문	10	12	↓2
전세계 사용 컴퓨터수 대비 점유율	정량	11	12	↓1
인구 천명당 컴퓨터수	정량	17	26	↓9
인구 천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정량	16	7	↑9
인구 천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정량	27	26	↑1
평균 인터넷 대역폭 속도	정량	2	12	↓10
디지털 기술의 사용 용이성	설문	18	33	↓15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	설문	25	37	↓12
공공 및 민간부문의 벤처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	설문	29	38	↓9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설문	44	45	↓1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설문	38	34	↑4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	정량	4	6	↓2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	정량	6	7	↓1
서비스 수출액 중 ICT 서비스의 비중	정량	41	41	-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	설문	21	23	↓2

자료) IMD, 「2020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와 「202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각각 발췌하여 정리.

5. 요약 및 정리

- 2021년 IMD 세계경쟁력 순위는 스위스가 최초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싱가포르 순이며 유럽 강소국의 강세가 더 두드러짐

 - 전 세계에 걸친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반영한 이번 결과는 팬데믹 이전에 경제적 완충장치를 구축한 국가들이 감염 수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영향에서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 혁신에 대한 투자, 디지털화, 복지혜택, 사회적 화합을 가져오는 리더십 같은 자질이 경제가 위기를 더 잘 극복하고 더 높은 경쟁력 순위를 차지할 수 있게 돕는 것으로 판단
 - 1위의 스위스는 유럽국가로서의 이점과 EU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민첩할 수 있었고, 1위에서 5위로 하락한 싱가포르는 서비스의 수출입과 사람들의 이동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 수준에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역대 최고 순위(22위)에 근접하며 상승추세로 전년대와 동일한 23위 유지

 - 2개 분야는 상승, 2개 분야는 하락하였는데 경제적 성과(18위, ↑9)와 인프라(17위, ↑1) 분야는 국가경쟁력보다 높은 순위이고, 정부효율성(34위, ↓6)과 기업효율성(27위, ↑1) 분야는 국가경쟁력보다 낮은 순위로 약점 보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
 - * 기업효율성 분야는 5년간 지속적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효율성 분야는 매년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냄
- 과학인프라 부문은 1단계 상승한 2위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8단계 상승했던 기술인프라는 다시 4단계 하락(13위 → 17위)

 - 과학인프라는 R&D투자, 인력, 특허, 첨단기술산업 등 노벨상 관련 지표를 제외한 모든 정량지표가 10위권으로 기존의 강점이 잘 유지되고 있으나, 설문조사 항목의 순위는 25위 이하로 낮은 순위를 기록
 - * 그러나 3개 지표 모두 올해 순위가 상승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순위이며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술인프라는 해마다 높은 폭으로 순위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기업인 대상의 설문지표 비중이 40% 정도로 높은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따라서 순위의 등락폭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경계해야 함
 - * 그럼에도 과학인프라 설문항목이 모두 순위가 상승한 것과 반대로 7개 중 6개의 설문항목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관련 설문항목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통계표]

〈표 5〉 국가 경쟁력 순위(2017년~2021년)

국가	'17	'18	'19	'20	'21	국가명	'17	'18	'19	'20	'21
스위스	2	5	4	3	1	사이프러스	37	41	41	30	33
스웨덴	9	9	9	6	2	체코	28	29	33	33	34
덴마크	7	6	8	2	3	카자흐스탄	32	38	34	42	35
네덜란드	5	4	6	4	4	포르투갈	39	33	39	37	36
싱가포르	3	3	1	1	5	인도네시아	42	43	32	40	37
노르웨이	11	8	11	7	6	라트비아	40	40	40	41	38
홍콩	1	2	2	5	7	스페인	34	36	36	36	39
대만	14	17	16	11	8	슬로베니아	43	37	37	35	40
아랍 에미리트	10	7	5	9	9	이탈리아	44	42	44	44	41
미국	4	1	3	10	10	헝가리	52	47	47	47	42
핀란드	15	16	15	13	11	인도	45	44	43	43	43
룩셈부르크	8	11	12	15	12	칠레	35	35	42	38	44
아일랜드	6	12	7	12	13	러시아	46	45	45	50	45
캐나다	12	10	13	8	14	그리스	57	57	58	49	46
독일	13	15	17	17	15	폴란드	38	34	38	39	47
중국	18	13	14	20	16	루마니아	50	49	49	51	48
카타르	17	14	10	14	17	요르단	56	52	57	58	49
영국	19	20	23	19	18	슬로바키아	51	55	53	57	50
오스트리아	25	18	19	16	19	터키	47	46	51	46	51
뉴질랜드	16	23	21	22	20	필리핀	41	50	46	45	52
아이슬란드	20	24	20	21	21	불가리아	49	48	48	48	53
호주	21	19	18	18	22	우크라이나	60	59	54	55	54
한국	29	27	28	23	23	멕시코	48	51	50	53	55
벨기에	23	26	27	25	24	콜롬비아	54	58	52	54	56
말레이시아	24	22	22	27	25	브라질	61	60	59	56	57
에스토니아	30	31	35	28	26	페루	55	54	55	52	58
이스라엘	22	21	24	26	27	크로아티아	59	61	60	60	59
태국	27	30	25	29	28	몽골	62	62	62	61	60
프랑스	31	28	31	32	29	보츠와나	-	-	-	-	61
리투아니아	33	32	29	31	30	남아공	53	53	56	59	62
일본	26	25	30	34	31	아르헨티나	58	56	61	62	63
사우디아라비아	36	39	26	24	32	베네수엘라	63	63	63	63	64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목록

발간호	제목	저자
2021년 제9호	2021 IMD 세계경쟁력 분석	김선경 (KISTEP)
2021년 제8호	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 - 2020년 전국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기준	임현정 (한국연구재단)
2021년 제7호	2019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 NSF, Survey of Earned Doctorates	유현지 (KISTEP)
2021년 제6호	2020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김선경 (KISTEP)
2021년 제5호	OECD ISSA 주요 결과 검토	박보경, 이윤빈 (KISTEP)
2021년 제4호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현황	유현지, 이현익 (KISTEP)
2021년 제3호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정경진 (KISTEP)
2021년 제2호	2019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여은주, 김한해 (KISTEP)
2021년 제1호	2019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안지혜 (KISTEP)
2020년 제20호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R-COSTII) 결과와 시사점	안지혜 (KISTEP)
2020년 제19호	2019년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	박보경, 이윤빈 (KISTEP)
2020년 제18호	2019년 한국과 주요국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비교	한혁, 박보경 (KISTEP)
2020년 제17호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원 부문 집행현황	이현익, 유현지 (KISTEP)
2020년 제16호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현황	유현지 (KISTEP)
2020년 제15호	미국 과학/공학 분야 인력 현황	김행미 (KISTEP)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호수 : 2021년 제9호

발간물 명 : 2021 IMD 세계경쟁력 분석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자 혹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정보분석센터

Tel. 043 750 2730 Fax. 043 750 2686